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delivered 28 August 1963, at the Lincoln Memorial, Washington D.C.



이 자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I am happy to join with you today in what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est demonstration for freedom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백 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의 그늘 아래 서 있습니다. 이 선언은 불의의 불꽃 속에서 타들어가던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기나긴 억압의 밤을 끝내는 기쁨의 새벽이었습니다.

Five score years ago, a great American, in whose symbolic shadow we stand today,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is momentous decree came as a great beacon light of hope to millions of Negro slaves who had been seared in the flames of withering injustice. It came as a joyous daybreak to end the long night of their captivity.

그러나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은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의 삶은 여전히 차별과 분리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은 넘치는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가난이라는 외딴 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은 미국 사회 구석으로 내몰려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But one hundred years later, the Negro still is not free. One hundred years later, the life of the Negro is still sadly crippled by the manacles of segregation and the chains of discrimination. One hundred years later, the Negro lives on a lonely island of poverty in the midst of a vast ocean of material prosperity. One hundred years later, the Negro is still languished in the corners of American society and finds himself an exile in his own land. And so we've come here today to dramatize a shameful condition.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수표를 들고 은행에 온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을 설계한 사람들이 헌법과 독립선언서에 그 위대한 말들을 써 넣었을 때, 그들은 모든 미국인에게 하나의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 그렇습니다, 백인뿐 아니라 흑인도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유색인 시민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약속을 지키는 대신, 미국은 흑인에게 잔액 부족으로 되돌아온 부도 수표를 쥐여줬습니다.

In a sense we've come to our nation's capital to cash a check. When the architects of our republic wrote the magnificent word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y were signing a promissory note to which every American was to fall heir. This note was a promise that all men, yes, black men as well as white men, would be guaranteed the "unalienable Rights" of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t is obvious today that America has defaulted on this promissory note, insofar as her citizens of color are concerned. Instead of honoring this sacred obligation, America has given the Negro people a bad check, a check which has come back marked "insufficient funds."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기회가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But we refuse to believe that the bank of justice is bankrupt. We refuse to believe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in the great vaults of opportunity of this nation. And so, we've come to cash this check, a check that will give us upon demand the riches of freedom and the security of justice.

우리는 또한 지금이 얼마나 급박한 순간인지 미국에 다시 한번 알려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은 느긋하게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하자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 인종 평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나라를 인종 불평등의 늪에서 끌어올려 진정한 형제애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We have also come to this hallowed spot to remind America of the fierce urgency of Now. This is no time to engage in the luxury of cooling off or to take the tranquilizing drug of gradualism. Now is the time to make real the promises of democracy. Now is the time to rise from the dark and desolate valley of segregation to the sunlit path of racial justice. Now is the time to lift our nation from the quicksands of racial injustice to the solid rock of brotherhood. Now is the time to make justice a reality for all of God's children.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이 나라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흑인의 정당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뜨거운 여름은 자유와 평등의 시원한 가을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흑인이 분을 풀었으니 이제 조용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흑인에게 시민권이 주어질 때까지 미국에는 평화도 안정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날이 올 때까지 저항의 바람은 이 나라의 기초를 계속 흔들어들 것입니다.

It would be fatal for the nation to overlook the urgency of the moment. This sweltering summer of the Negro's legitimate discontent will not pass until there is an invigorating autumn of freedom and equality. Nineteen sixty-three is not an end, but a beginning. And those who hope that the Negro needed to blow off steam and will now be content will have a rude awakening if the nation returns to business as usual. And there will be neither rest nor tranquility in America until the Negro is granted his citizenship rights. The whirlwinds of revolt will continue to shake the foundations of our nation until the bright day of justice emerges.

그러나 지금 막 자유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증오와 원한을 마시며 자유를 향한 갈증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품위 있고 절도 있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저항이 폭력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힘에는 정신의 힘으로 맞서야 합니다.

But there is something that I must say to my people, who stand on the warm threshold which leads into the palace of justice: In the process of gaining our rightful place, we must not be guilty of wrongful deeds. Let us not seek to satisfy our thirst for freedom by drinking from the cup of bitterness and hatred. We must forever conduct our struggle on the high plane of dignity and discipline. We must not allow our creative protest to degenerate into physical violence. Again and again, we must rise to the majestic heights of meeting physical force with soul force.

지금 흑인 사회를 가득 채운 새로운 투쟁 정신이 모든 백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수많은 백인 형제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he marvelous new militancy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must not lead us to a distrust of all white people, for many of our white brothers, as evidenced by their presence here toda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destiny is tied up with our destiny. And the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freedom is inextricably bound to our freedom.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We cannot walk alone.

걸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And as we walk, we must make the pledge that we shall always march ahead.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We cannot turn back.

시민권 운동을 향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면 만족하겠나"고요. 흑인이 경찰 폭력의 희생자인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행에 지친 몸으로 고속도로 모텔과 도시 호텔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의 이동이 더 작은 빈민가에서 더 큰 빈민가로 옮겨 다니는 것뿐인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시시피의 흑인이 투표를 못 하고 뉴욕의 흑인이 투표할 이유조차 없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물처럼 흘러내리고 의로움이 큰 강처럼 흐를 때까지,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re are those who are asking the devotees of civil rights, "When will you be satisfied?"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the Negro is the victim of the unspeakable horrors of police brutality.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our bodies, heavy with the fatigue of travel, cannot gain lodging in the motels of the highways and the hotels of the cities. We cannot be satisfied as long as the negro's basic mobility is from a smaller ghetto to a larger one.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our children are stripped of their self-hood and robbed of their dignity by signs stating: "For Whites Only." We cannot be satisfied as long as a Negro in Mississippi cannot vote and a Negro in New York believes he has nothing for which to vote. No, no, we are not satisfied, and we will not be satisfied 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크나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막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섰다가 박해의 폭풍에 두들겨 맞고 경찰 폭력에 휘청거렸던 곳에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고통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앨라배마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조지아로, 루이지애나로, 북부 도시의 빈민가로 돌아가십시오. 이 상황은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I am not unmindful that some of you have come here out of great trials and tribulations. Some of you have come fresh from narrow jail cells. And some of you have come from areas where your quest -- quest for freedom left you battered by the storms of persecution and staggered by the winds of police brutality. You have been the veterans of creative suffering. Continue to work with the faith that unearned suffering is redemptive. Go back to Mississippi, go back to Alabama, go back to South Carolina, go back to Georgia, go back to Louisiana, go back to the slums and ghettos of our northern cities, knowing that somehow this situation can and will be changed.

친구들이여,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맙시다.

Let us not wallow in the valley of despair,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오늘과 내일의 어려움 앞에서도,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And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백한 진리를 믿는다"라는 국가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날을 꿉꿉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전직 노예의 아들들과 전직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로서 한 식탁에 함께 앉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타오르는 미시시피 주조차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언젠가 제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저는 오늘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today!

언젠가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판치는 앨라배마에서, 주지사가 주권과 연방법 무효를 외쳐대는 바로 그 앨라배마에서,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형제자매로 손을 잡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저는 오늘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today!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은 곳이 곧게 펴지는 꿈을 꿉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남부로 돌아갑니다.

This is our hope, and this is the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나라의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감옥에 가고, 언젠가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을 알면서 함께 자유를 위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jangling discords of our nation into a beautiful symphony of brotherhood.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And this will be the day -- this will be the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will be able to sing with new meaning:

나의 조국여, 자유의 달콤한 땅이여, 그대를 노래하노라. 선조들이 죽어간 땅, 순례자들의 자부심의 땅, 모든 산기슭에서 자유여 울려라!

My country 'ti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뉴햄프셔의 웅장한 언덕에서 자유여 울려라.

And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뉴욕의 거대한 산에서 자유여 울려라.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펜실베이니아 앨러게니 산맥에서 자유여 울려라.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콜로라도 눈 덮인 로키 산맥에서 자유여 울려라.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캘리포니아 굽이치는 산비탈에서 자유여 울려라.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그뿐만이 아닙니다.
But not only that:

조지아 스톤 마운틴에서 자유여 울려라.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테네시 룩아웃 마운틴에서 자유여 울려라.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미시시피의 모든 언덕과 둔덕에서 자유여 울려라.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모든 산기슭에서, 자유여 울려라.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자유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할 때, 모든 마을과 모든 동네에서,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도록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방인, 개신교와 가톨릭교가 손을 잡고 오래된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And when this happens, and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롭습니다!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